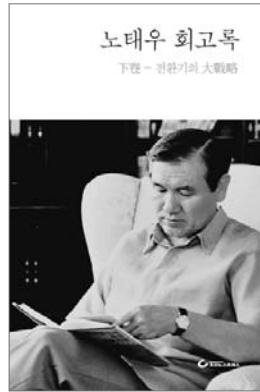


투데이

노태우 “5·18 진범은 유언비어” 논란

회고록 내용 비난 확산…지역민 “책임회피·역사왜곡”

盧 “1992년 대선때 김영삼에 선거자금 3000억 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을 유언비어 탓으로 돌려 광주·전남 민심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5·18 계엄 확대에 대해 “치안 유지 차원”이라 고하는가 하면 12·12 사태에 대해 서도 “쿠데타가 아닌 돌발사고”라 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9일 출간한 자서 전 ‘노태우 회고록(상·하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유언비어가 진범”이라며 “경상도 군 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려 왔다”는 등 유언비어를 들고 시민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12·12 사태에 대해 “국가원수를 시해한 김재 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정승화 당시 윤군참모총장을 연행하려다 일어난 돌발사고였다”며 “쿠데타가 성립될 구상요건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5·17 계엄 확대에 대해 그는 “서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선거자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적어도 4000억~5000억원이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왔고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의원을 통해 각각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선 막바지에 김 후보로부터 자금이 모자란다는 SOS (긴급요청)를 받고 금 전 장관을 통해 한몫에 1000억원을 보내줬다”며 “김 후보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7년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과도를 자서전을 통해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사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원회 등에서 모은 500억원을 더해 2000억원 정도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 당시 자신이 관리한 금액이 “이자를 제외하면 현금 1218억원, 채권 1539억원으로 원금만 2757억원이었다”며 “대선에서 모두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큰 돈이 남았으며 모은 돈은 훗날 유용하게 쓰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1987년 6·29 선언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단임으로 물러나는 생각이었지만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달라졌고 결국은 자신이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을 유언비어라고 주장한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과도를 자서전을 통해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사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승선태 상임이사

는 “5·18 민중항쟁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태로 국민적 상식이 된 지 오래다”라며 “5·18 민중항쟁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중항쟁을 집권 음모가 아닌 유언비어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5공 세력의 부활을 노린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회 설립 추진위원회 김상집 회장은 “5·18 민중항쟁은 5·17 비상계엄 확대 등 이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집권 음모인데, 유언비어가 원인이라고 말한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문제와 연계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사리 손으로 그린 태극기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은 광복절을 앞둔 10일, 어린이들에게 태극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층 전시장에서 ‘태극기 그리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U대회 조직위 중국서 뜨거운 홍보전

FISU 새 집행위원장 갈리앙, 김종량 집행위원 재선

2015년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4개 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국제스포츠대회 현장에서 광주U대회의 홍보에 나섰다.

10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둔 중국

선전을 지난 9일부터 방한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가 열리는 우저우 호텔에 부스를 설치하고 국제스포츠조경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주U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마리보, 카잔(2013

년 하계), 그라나다(2015년 동계) 등 4개 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와 2017년 동·하계대회 개최도시인 알마티, 트렌티노, 브라질리아, 코카엘리, 타이베이가 부스를 설치해 뜨거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김윤석 조직위사무총장은 “홍보부스에서 민간 집행위원뿐 아니라 각국 대학스포츠 관계자 대다수가 광주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최고의 결원을 가진 집행위원들에게 광주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오는 27일부터 9월4일까

지 대구세계상선수권대회장으로

이동해 스포츠 관계자와 세계 주요

미디어, 입장객을 대상으로 광주U대

회를 알릴 방침이다.

한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은 지난 9일 우저우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글로드 루이 갈리앙(프랑스)

제1부회장으로 재선됐다. 김종량 현대대 전총장은 최다 득표로 집행위원 재선에 성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감사원 “광양시 카페리 사업 부적합업체 선정”

광양시가 광양항~일본간 카페리 항로를 운항할 여객선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내놓은 ‘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4월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 개설의 향 선사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

운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대상으로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했다.

해운법(5조 1항 등)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총톤수 500t 이상의 여객선 1척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광양시는 이같은 기준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광양시의 요청에 따라 국제 정기여객선 신규 취항에 필요한 인력 및 일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 전 사용신고를 받고 터미널을 임시 운용해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北 연평도 포 사격…우리군 대응사격

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연평도 동북쪽 해상으로 포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동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께

북한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의 해안 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3발의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그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

정하고 오후 2시께 K-9 3발을 대응사격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 직후에 연평도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으며, 우리 군과 주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 공작조가 김관진 국방 장관을 암살하려 한다는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휴가마친 姜시장 해외투자유치 일정 돌입

고발고 해외투자유치, 2012년 국비 확보, 하반기 국제 및 문화행사 준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영국과 독일, 중국 등을 차례로 돌며 광주의 LED 제품 수출과 업무협력, 우호교류협정 등에 나서 강 시장이 주창한 ‘장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널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세이스스 + 100%장기상환보증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육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보증보/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10.1%~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50년 전통·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齒 ~ 치 료 치 료

한 시장은 휴가 복귀 후 현안을 보

고받고 해외투자유치, 2012년 국비 확보, 하반기 국제 및 문화행사 준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영국과 독일, 중국 등을 차례로 돌며 광주의 LED 제품 수출과 업무협력, 우호교류협정 등에 나서 강 시장이 주창한 ‘장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널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선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① 교육기간 :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 말일까지 :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②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③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선출미예상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성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④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술,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염려하는 대화법, 짐재 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연설 30초 안내 답변방법 등

⑤ 교육형式 :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⑥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 (월) 10 : 00 ~ 17 : 00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육학과 (호실관 4층)

⑦ 등록방법 (수강료 :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 광주대 평교원)

⑧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출신 원우회 월 1회